

## 제9회 해양 안전 포스터 디자인·어린이 그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 포스터 디자인 분야 “불행과 다행은 구명조끼 한 장 차이” 등 총 5점 선정
- 어린이 그림 분야 김지호 어린이 “안전한 바다를 그리다” 등 총 21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국민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그리다」 제9회 해양 안전 포스터 디자인과 어린이 그림 공모전 수상작 26점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과 함께 안전한 바다를 그리다 공모전’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45일간 총 1,100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역대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올해는 어린이 해양 안전 분야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올해 포스터 디자인 분야 대상은 장성화님의 작품으로 “불행과 다행은 구명조끼 한 장 차이” 바다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구명조끼 착용을 알리는 것을 시각화하였고

또한, 어린이 분야 대상은 김지호 어린이(초2)의 작품으로 “안전한 바다를 그리다” 어린이 시각에서 바라보는 안전한 바다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외에 포스터 분야 우수작 4점과 어린이 그림 20점 등 총 26점이 선정되어 해양 안전 홍보자료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해 준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해양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상식은 다음 달 7월 18일 해양경찰청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포스터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해양경찰청장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어린이 분야 대상 수상자에게는 20만 원의 상금과 기념품이 수여될 계획이며, 공모전 당선작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http://www.kcg.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 감상할 수 있다.

담당 부서	해양안전과 안전기획계	책임자	과 장	이종욱 (032-835-2048)
		담당자	계 장	김석규 (032-835-2139) (010-4339-4469)

대한민국  
지책브리핑





불행과 다행은  
구명조끼 한 장 차이입니다

구명조끼를 착용한다면 대부분의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해양 활동 시 생명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